

산사태 위기경보 ‘관심’ → ‘주의’ 상향 발령

- 3~4일부터 남부지역 많은 비 예보...
3일 16시 전남광주·부산·울산·경남 ‘주의’ 단계 격상 -

산림청(청장 박은식)은 오늘(3일) 16시를 기준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, 부산광역시, 울산광역시, 경상남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‘주의’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.

- * 위기경보 단계 : ‘관심’ - ‘주의’ - ‘경계’ - ‘심각’
- * 위기경보 ‘관심’에서 ‘주의’ 상향(4개 시도) : 전남광주, 부산, 울산, 경남
- * 위기경보 ‘관심’ 유지(12개 시도) : 서울, 대구, 인천, 대전, 세종, 경기, 강원, 충북, 충남, 전북, 경북, 제주

3일 11시 기준, 기상청은 오늘부터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주말동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. 3일부터 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전남·광주남부 30~80mm, 전남·광주북부 5~40mm, 경남서부남해안 20~60mm, 부산·울산·경남(서부남해안 제외) 5~40mm 이며, 5일에는 전남·광주 30~80mm, 부산·경남남해안, 지리산부근 30~80mm 이다.

- * 2026.7.3. 11:00 발표 예보종합 참고

산림청 산사태방지과장은 “많은 비가 예보된 지역의 국민께서는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,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에는 접근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”며 “긴급재난문자(CBS), 마을방송 등 대피 안내에 귀 기울이고, 대피명령이 내려질 경우 마을회관 등 지정된 대피소로 신속히 대피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
담당 부서	산림재난통제관실 산사태방지과	책임자	과장 정종우 (042-481-4270)
		담당자	사무관 박봉관 (042-481-8844)